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음 4월 11일) 제228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정읍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되나?

“교육 유산 특출한 전형”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유네스코에 ‘등재 권고’
도내에서 3번째 ‘예고’



이코모스(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14일 한국의 서원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 권고 평가 결과보고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읍 무성서원이 문화유산 등재가 유력해졌다. 사진은 무성서원 전경.

전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유력화되고 있어 전북 3번째 세계문화유산 탄생이 예고됐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코모스(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14일 한국의 서원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 권고 평가 결과보고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한국의 서원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권고 평가를 받은 서원은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무성서원(전북 정읍), 소수서원(경북 영주), 도산서원(경북 안동), 병산서원(경북 안동), 옥산서원(경북 경주), 도동서원(대구 달성), 남계서원(경남 함양), 필암서원(전남 장성), 돈암서원(충남 논산) 등 우리나라 6개 시·도 총 9개로 구성된 연속 유산이다.

이코모스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대표 사립교육 시설로 성리학을 조선사회에 정착·형성시킨 산실로 중국의 성리학이 서원에서 중국, 일본과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점과, 성리학이 지향하는 자연관과 한국의 문화적 전통이 반영된 교육 유산의 특출한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에 충족한다고 밝히고 있다.

1968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정읍「무성서원」은 1636년 향촌민에게 흥학(興學) 목적으로 세워진 서원이며, 예(禮)와 악(樂)으로 백성을 교화한 대표적 서원으로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 받았다.

전북도는 이를 계기로 한국 성리학

및 실학의 중심지이자 시종지로서 우수한 서원 및 향교를 연구·보존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라유학진흥원 설립에도 한층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무성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됨에 따라, 전북도는 고창 고인돌(2000년),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에 이어 3번째로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는 쾌거가 예상된다.

또 판소리(2003), 매사냥(2010), 농악(2014) 등 세계 인류무형유산도 보유

한 명실상부 세계가 인정한 전통문화역사도시 면모를 갖추게 된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고창갯벌(2020), 가야고분군(2021), 동학농민혁명기록물(2022) 등 전북지역 전통문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발표된다. /김진성 기자

社告

장애인의 날 기념을 위한

제13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일시: 2019년 5월 19일(일) 본선 오후 2시 30분

(예선 오전 10시)

장소: 전주 풍남문 광장(풍남문 옆)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장애인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고 장애인의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전국 장애인 가요제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주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사
- ▶ 주관: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지시소, 전주시 장애인 복지협회
- ▶ 후원 및 협찬: 전북도,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전북지회, 호남향토음악발전협의회, 노사모, 전북장애인신문사, JJC 지방자치 TV 전북방송(녹화방송) 등
- ▶ 참가자격: 만 16세 이상 장애인(단, 전국대회 대상 1등 수상자 제외)



군산조선소·한국GM 협력업체 '가뭄에 단비 만났다'

전북도-군산시-신보, 100억원 긴급자금 지원 결정

전북도와 군산시,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이 경영 악화일로에 놓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및 한국GM 군산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협력업체에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그간 이들 업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걸쳐서 공장 가동중단 장기화로 인한 경영악화와 군산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재지정(2019년 4월)에 따른 공장 재가동 및 업종변환을 위한 자금 지원 요청에 따라 3개 기관에 자금난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363회 임시의회 농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에서 전북신보 출연동의안 승인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도초과, 담보부족 등 여신한도 초과로 어려움에 처한 협력업체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도의회 농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은 "우리지역에서 대기업들의 잇따른 가동중단으로 협력기업들이 힘든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충족한 자금은 아니나 최소한의 자금을 긴급 지원하는 만큼 협력기업들의 공장 재가동과 업종

변환 등을 위해 긴요한 자금활용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북신보가 접수·심사, 대출 등을 일련 과정을 담당하고, 생산설비를 갖춘 조선·자동차 기자재 및 부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며, 총 1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신보에서는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전북신보의 기(기) 보증 한도(8억원)를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용자기간을 폭 넓게 지원범위를 설정하는 등 지원 정책을 하였다. 3.8% 내외의 금리로 지원되며 이자차액에 대해서 2.5%를 도에서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업체가 부

담할 금리는 1.3% 내외가 될 전망이다.

또한, 군산에서는 이번 추가지원에 대해서 해당 협력업체가 다수인 만큼 전북신보 출연금에 대해서 군산시도 일지리계제국 나석훈 국장은 "협력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종관 군산조선업협회장은 "협력기업들의 한도초과, 담보부족 등 여신거래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긴급자금 지원으로 우리 협력기업들은 가뭄에 단비를 만났다"면서, "추가 자금으로 기업의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아름다운 도전... 전국장애학생체전 개막

장애학생선수들의 열정과 아름다운 도전이 펼쳐질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이 14일 개최식을 시작으로 도내 6개 시·군에서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16면> 이산을 주 개최지로 경기가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함께 뛰는 땀방울, 자신감의 꽃망울'이라는 구호 아래 17개 시·도 선수 및 임원 3,00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개최식은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 김승환 전북

도교육감,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국회의원 등 3,0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공식행사에서는 '두 걸음, 꿈의 희망을 담아'를 주제로 선수단 입장, 개회선언, 환영사, 대회기 게양, 개회사, 축사 등이 펼쳐졌다.

공식행사 종료 후에는 '세 걸음, 미래의 도약을 담아'라는 주제로 청하, 비와이 등 인기가수 공연으로 개최식에 열기를 더해 성공적인 개최식이 펼쳐졌다. /익산=장인천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